

국제경제

미국 여성사업가 급증 추세

증가속도 남성의 2배...승진 불이익등 좌절감이 독립동기

지난 4월28일 미국 전역에서는 '우리의 딸을 직장으로 데려가자'는 구호 아래 9~15살 사이의 소녀들을 직장에 데려가는 '운동'이 벌어졌다. 소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세상을 비서·교사·주부 등으로 좁히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 여권운동가들이 기획한 이 행사는 예상 밖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런 미국 사회의 분위기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있었다가 다시 일고 있는 최근 몇 년간의 여성사업가의 급증추세와 맞물려 있다.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수는 지난 87년의 4백10만개에서 현재 5백40만개로 늘어났다. 전체 기업체수 1천6백90만개의 3분의1에 이르는 수치다. 여성사업가들의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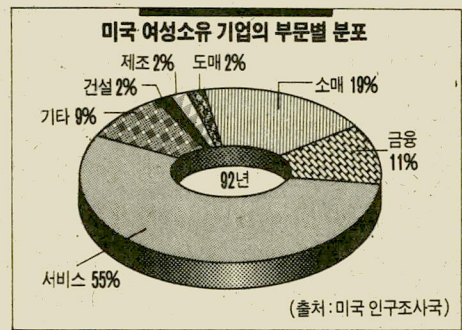
가속도는 남성의 2배나 돼, 2000년이 되면 전체 기업체의 절반을 여성들이 소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성소유 기업체의 55%는 아직 서비스업종이지만 증가속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가장 빠르다. 87년 이래 5년간 여성 서비스업체의 매출액은 76.7% 늘어났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증가율은 각각 46.6%와 34.7%를 기록했다.

을 시작하는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여성 잡지들도 많은 쪽수에 여성사업가들의 이야기를 실는다. 클린턴 행정부도 이에 발맞춰 정부구매물자의 일정 비율을 여성사업가들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성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동기는 기본적으로 남자와 다르지 않다. '더 많은 자율성과 돈'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다닌 기업체에서 경험한 좌절감이 더 크게 작용한다. 남녀평등을 말하면서도 실제 승진기회는 제한되어 있는 현실, 여성들은 그것을 "쳐다볼 수는 있으나 건넌갈 수는 없는 유리벽이 존재한다"고 표현한다.

아직 서비스업 몰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시기에 따라 유리벽을 실감하는 시기는 입사후 10~15년으로 늦춰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벽은 두꺼워진다. 중간관리자 수준에서는 비슷한 남녀비율이 이사급으로 가면 3대1로 벌어지고 최고경영자까지 가면 몇십년 전과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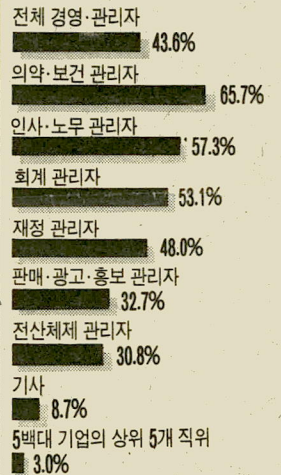


전체 기업 30%차지

앞으로 여성사업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내 여성관리자(여성기업인)도 대폭 늘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포천>이 선정한 미국내 5백대 기업에서 수석부사장의 9%는 여성이다. 82년에 4%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다. 이사급은 13%에서 23%로 늘어났다. 특히 기업내 의약·보건관리자는 3분의2가 여성이고 인사·노무관리자와 회계관리자도 여성이 더 많다(표참조).

여성사업가들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최근 몇년간 '가하급수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 여성사업자과정을 개설했으며 배출되는 경영학석사(MBA)의 40% 가량이 여성이다. 80년에 20% 남짓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하다. 중소기업청도 얼마전부터 여성사업가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전국규모로 개설했고, 전국여성경영자협회는 새로 사업

미국 여성기업인들의 분야별 비율



5백대 기업의 상위 5개 직위 중 여성은 3%에 불과하다.

최근 몇년간 사업을 시작한 여성들은 선배 여성사업가들과는 다르다. 선배들은 가사를 함께 꾸리면서도 사업에서는 남성적인 사고 및 행동양식을 취하는 '슈퍼우먼'이었다. 그러나 지금 생겨나는 여성사업가들은 자신만의 전문적인 기술과 행동원칙을 갖고 있다.

아울러 선배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희생'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

전문직 기술로 도전

전문가들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좀 더 용감해져라"고 충고한다. 남성 위주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체제 또는 관습에 매몰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발전가능성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전문가는 이를 "여성사업가들은 아직 게릴라적인 전술을 써야 한다"는 말로 표현한다. 끊임없이 기존체제를 바꿔나가면서 남성들이 놓친 빈공간을 짚싸게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확산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자신감은 크게 신장했지만 일터에서 여성을 가로막는 벽은 여전히 두텁기만 하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이 벽을 뛰어넘어 기업을 세우는 여성의 숫자가 크게 늘어 미국 전체 기업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새 책

스테판 캔퍼 마지막 제국

다이아몬드 카르텔 파헤쳐

거대자본이 세계시장을 주무르는 내막을 들여다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것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로부터 금수대상이 돼 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업에 관한 얘기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이 책은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80%를 주무르는 남아공의 다이아몬드 카르텔 '드비어스'와 '앵글로 아메리칸 코퍼레이션'의 역사를 그리고 있다. 드비어스는 1867년 이래 남아공의 다이아몬드 러시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수백개를 매수와 합병, 음모로 한손에 움켜쥔 에르네스트 오펜하이머 일가의 기업이다. 막강한 석유수출국기구(오펙)

의 석유값도 아래위로 요동치지만 다이아몬드값은 드비어스의 통제 아래 거의 언제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인조다이아몬드의 발명 뒤에도 사정은 바뀌지 않았다. 드비어스는 막대한 자본, 채광기계제조에서 제련 기술에 이르는 수직독점체제로 시장지배를 굳혔다. 인조다이아몬드는 제조특허권을 매수함으로써 통제가능한 변수로 만들었다. 심지어 남아공과 전쟁중이던 앙골라나 옛 소련과의 다이아몬드 거래도 독점했다. 세계 각지의 서로 다른 이름과 국적을 가진 1천3백여개의 드비어스의 자

회사가 상대를 속이거나 상대의 묵인 속에 거래를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 강력한 카르텔에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한때 흑인 광부들의 숙소에 원격조종 최루탄발사기까지 설치했던 이 백인 회사에 남아공의 민주화는 두렵고 불확실한 미래를 느끼게 할지 모른다. 또 세계 다이아몬드 매장량의 4분의1이 있는 러시아 극동의 야쿠츠크는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드비어스의 독점망을 뚫고 일본으로 다이아몬드를 밀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 스테판 캔퍼가 보기에 이 카르텔은 무너지지



않을 마지막 제국이다. 60년대 아프리카 각국이 잇따라 독립하던 어려운 시기에도 드비어스는 곧 자본주의(보츠와나), 사회주의(탄자니아), 1인독재(자이르)를 가리지 않고 다이아몬드 독점을 복원해낸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